

사설

낡은 것이 되살아나고 있다

1995년간 이화여대의 전통과 상징으로 굳어져 온 학칙인 금호(禁嬉) 조항(학칙 28조 7항)에 대해 이대 학생들이 반기를 들었다. 학생들이 오는 26일(화) 교내 이화광장에서 '모의 결혼식'을 유플로드와 학회 개정을 위한 응원자들에 들어간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 억지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모임 한 헛마디로 해 봤을 것이다. 더구나 이 조항은 기혼 여성들이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요즘 젊은이들로부터 표기하고 있는 '열린 교육'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래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몇 가지 학칙이 존재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단지 이화여대의 다른 경기 있다면 이화여대 학칙은 조성망봉건 시대에, 본교 학칙은 암흑증진은 군사독재 시절에 제정됐다는 사실 뿐이다. 지난 학기 전세계대학포럼자치회(전대대회)에서 학생들에게 개정조항에 논의된 학생회 회칙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85년도에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논의한 개정조항은 85년도에 평시민대학회 의해 대학당국으로부터 전학대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당국과 학생기자간 마찰의 원인이 된 신문사 사직 역시 같은 시절인 70년대에 제정됐으니 그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후 개정된 신문사 사직규정은 기성적 조항(84년 개정 시행)과 주간교수 일기(1년에서 100일로, 98년 개정 시행) 조항등이다. 기준들도 모르는 체 바꿨으나 증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실례가 아니라면 대자보를 넓이는 사전은 규정에서부터 직접 적용은 되지 않더라도 요즘 대학에 맞지 않는 많은 학칙들이 있다.

대학당국은 시대의 흐름(?)마다 '세계화 국제화'의 이름에 걸맞는 외래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시대착오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세계화에 걸맞는 대학은 요원한 꿈임 뿐이다.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것부터 청진해야 한다.

상아탑의 간 큰 좀도둑

도서관이나 학내에서 도난당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문제다. 도난 당한 지갑, 물품을 토해낸 경작은 작은 대자보는 학내에서 종종 눈에 띈다. 도난당한 불쌍한 일 때문에 도서관을 깨닫는 학생은 하생인지 있으나 살로 안타깝다.

지난 15일(금) 오후 8시경 서울캠퍼스 도서관 3층에서 출입도록 했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범인의 노란 봉투에는 슬쩍한 경찰과 함께 물건이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밖을 통증으로 끌어온 학생에게 했을 지는 눈에 선하다. 이 같은 도난범은 서울대와 본교를 자기 구역으로 하는 상습범이라고 한다.

일반 상습범이 겹쳤으니 속시원하고 본교생이 아니라는 것은 대형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도난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 언제 어떻게 도난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도서관에서 겪는 불편한 경험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함께 학문적인 피해까지 동반하게 된다. 또 이를 통해 교내에는 누군가를 의심하는 불신과 자괴감을 수 밖에 없다.

맙소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풍기는, 학문적 열기가 높은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의 안전장치는 시급하다. 현재 도난 방지책으로 본교 도서관 입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학생증 검사는 국회 원시화기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보이기도 흐리기도 맘만 먹으면 본교생이 아니라라도 손쉽게 빼 수 있는 허술한 방패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각 대학 도서관을 겨우나 전문 도난범으로부터 본교 도서관을 보호하는 깊은 학생증의 ID 카드이다. 원시화기인 지급의 학생증 검사는 도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끝되기 때문이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열린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외대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입니다.

2번 째 원고지 4~5쪽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니다.

채택된 원고는 1매당 125백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컴퓨터 등록을 합니다.

(천연인 OEDAE, 하이텔 OEDAE, 나누누리 OEDA 모두 등록)

원고에 소속과 학년·이름도 함께 주십시오. 열린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합시다.

□ 외대학보를 읽고

외대인의 관심속에
개선될 식당문제

지난 647호 학보에 실린 기숙사 식권의 매수 부족과 밥값 인상 의혹 기사에 대해 사생회의 입장과 함께 밝혔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시사에서는 45매의 한도분식권을 받게 돼 있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1회60회 식권증 한도분식권을

제공하는 등 학생회가 아닌 밀집된 물량을 확보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한다.

이런 실례가 아니라면 대자보를 넓이는 사전은 규정에서부터 직접 적용은 되지 않더라도 요즘 대학에 맞지 않는 많은 학칙들이 있다.

대학당국은 시대의 흐름(?)마다 '세계화 국제화'의 이름에 걸맞는 외래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시대착

오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세계화에 걸맞는 대학은 요원한 꿈임 뿐이다.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것부터 청진해야 한다.

상아탑의 간 큰 좀도둑

도서관이나 학내에서 도난당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문제다. 도난 당한 지갑, 물품을 토해낸 경작은 작은 대자보는 학내에서 종종 눈에 띈다. 도난당한 불쌍한 일 때문에 도서관을 깨닫는 학생은 하생인지 있으나 살로 안타깝다.

지난 15일(금) 오후 8시경 서울캠퍼스 도서관 3층에서 출입도록 했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범인의 노란 봉투에는 슬쩍한 경찰과 함께 물건이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밖을 통증으로 끌어온 학생에게 했을 지는 눈에 선하다. 이 같은 도난범은 서울대와 본교를 자기 구역으로 하는 상습범이라고 한다.

일반 상습범이 겹쳤으니 속시원하고 본교생이 아니라는 것은 대형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도난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 언제 어떻게 도난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도서관에서 겪는 불편한 경험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함께 학문적인 피해까지 동반하게 된다. 또 이를 통해 교내에는 누군가를 의심하는 불신과 자괴감을 수 밖에 없다.

맙소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풍기는, 학문적 열기가 높은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의 안전장치는 시급하다. 현재 도난 방지책으로 본교 도서관 입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학생증 검사는 국회 원시화기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보이기도 흐리기도 맘만 먹으면 본교생이 아니라라도 손쉽게 빼 수 있는 허술한 방패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각 대학 도서관을 겨우나 전문 도난범으로부터 본교 도서관을 보호하는 깊은 학생증의 ID 카드이다. 원시화기인 지급의 학생증 검사는 도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끝되기 때문이다.

디 이지런이겠는가.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사실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을 건설하는 주장을 여러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야才行 어려울 것 같다. 5억을 들여 예술대학에 주제곡인 캐릭터를 회보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7천원짜리여야나 되는 학생은 중 그 혜택을 보는 것은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제워너를 건설하는 부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획이나 예산이나 운동장이나 휴식 공간을 없애고 주제워너를 건설한다면 우리 학교는 디자인 학교가 아닌 밀집된 물량을 살피는 곳이 될 것이다.

물론 대학당국이 학생 하나하나가 비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지만 대학당국이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의 요구자체도 무시한 채에는 너무도 많다.

주제워너를 건설하자고 한 학생은 열악한 캠퍼스 환경을 보면서 기고했으므로 모든 학생들도 예술을 갖고 학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발전에 노력했으면 한다.

이는 앞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대학 배려로서의 의무라 생각한다.

김수진 (상경·경제 3)

우수 신입생 유치

대학당국 발벗고 나서야

5·3 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대학 평판제도 도입 등 일련의 교육문화 주제가 불경쟁력에 많은 학생들에게 더 쓰여져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런 주제가 존재하고 앞으로 그에 맞는 경쟁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예기했던 대로 학교를 갖고 학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발전에 노력했으면 한다.

그러므로 우수한 학생의 학생을 선별하는 것은 우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내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입시 마지막 날 문제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 외대인 탓에 모든 대학에 지원한 우수학생이 외대를 지원한다는 대학당국의 편안한 생각은 합심하기 그지없다.

그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외대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제 대학당국은 학교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조

나는 우째 먹고 살라고

- A폭격기 교수 일동 -

여기구! 내 친구 불쌍하다 어찌 - 군대는 이이 -

난 아닐까야! - R 간군이 -

음마! C이 제일 좋은 점수 아님 같. 나는 C+도 감자더진 거. - 옥경이 -

외대생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한다 - 95년도 출입생 -

비록 대학원 선발에 점수를 안고 있지만 나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야겠다. 내가 진출할 사회의 윤리를 모습을 지향부터 만들어야겠다.

후배들이 벌이고 있는 이명을 내입은 꼭 해야겠다. 그리고 교수님들로부터 기고장을 넘겨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노력하겠다. 성공한 후대에는 차별을 두 수 없는 김강식을 꿈에서라도 데려주고 싶다.

박승원 (동구·체코어 4)

교수 강의 편의 위해

쫓겨나는 학생들

나는 부평관 과목으로 영어를 들는 학생이다. 전공이 아티크레이터 아닌 나로서는 외국어 중에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점점과학대학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수업시간(영어작문)에 교수님께서

□ 토론 정리 : 해방 50주년,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남한도 북한도 아닌 박홍만의 통일전략



“공산주의는 선을 가장한 악의 사상이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시키려 한다”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며,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한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수단이다”

박 홍
(서강대총장)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즉, 관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0년대 까지 만 해도 북한을 비로보는 시각은 통일과 봉침암이라는 두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동동 부여에게 선을 국가로 침든 상황이다.

작년 주사파 파동으로 전경이 술렁일 때 국우 보수파 입장과 백연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백종훈장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지난 10월(금 오전) 31 세강대 아너시오국 국제회의 실내에는 '해방 50년,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토론회가 진행됐다. 고려대 교수(제주대)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약 1시간 동안 세미나가 진행됐고, 이후 박홍만교수(서강대 총학생회회장)군, 박홍만(정의교수), 정의진(대학원 총학생회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강등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대립하면서 대북 시각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함께 진행됐으며, 북한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가지며 할 가장 현실적인 시각을 모색하기 위해 절충점은 미흡히 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물질로 시각'을 모색하기 위해 당시 토론회에서 나왔던 대화들을 정리해주고자 한다.

주시파과 과정과 반공 이데올로기

박홍만(성) "여흥 충장은 작년 주사파과장을 일으키 신경이었지만, 낭분분장을 조성해 유래없는 이데올로기 강등을 불러 놓지 않았는가?"

박홍만(반) "광복당국이나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이나 남자 빌어먹고 그녀의 범인이 고연현(원장)과 시작과 맞달이 되기 때문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스포츠 "박홍만은 통일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럴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가?"

박홍만(반) "공산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민족과 신념이나 태도와는 별 관계가 없는 엘리트 이데올로기이다. 단지 자기들이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포아르트-마르크스 등의 사회과학은 사회의 문제를 잘 지적했고 인류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긴 했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을 가정한 악의 사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주주의 사상도 물질민주주의·이기주의의 폐력을 고려,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함께 진행됐으며, 북한에서는 단일 것 등 많은 독소가 있으니 완전하다고 본다면 북한은 단일 것이다. 그에 맞는 시각이다. 그리고 그 시각은 북한을 위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며 할 가장 현실적인 시각을 모색하기 위해 절충점은 미흡히 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성필(신) "통일에 있어 이데올로기와 체제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작년 주사파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이 되자, '반공'이라는 맥락에서 공세를 통해 통일방안을 마련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성필(신) "통일에 있어 이데올로기와 체제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작년 주사파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이 되자, '반공'이라는 맥락에서 공세를 통해 통일방안을 마련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쳐놓았다.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데올로기는 현재 남한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스포츠 "그럼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박종훈장은 유민주주의와 체제를 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경이 학생회장의 통일방안도 들고 싶다."

박 "내가 충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체제가 더 우월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남한의 힘으로 충수통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주석이나 우리식 사회주의로 통일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신신 "먼저 남한은 우에서 좌로, 북한은 좌에서 우로 서로 가까이 지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려보자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하는 것 같다. 선차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에 의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듯 철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는 어떤 체제와 정부로 통일국가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한다."

신 성

필
(서강대 총학생회장)

통일운동에 대한 박종훈장의 시각

스포츠 "신성필군에게 묻겠는데 한동련 출범 선언문에 '김일성을 대리서 '등의 북한 노동자 신문과 똑같은 문구를 넣었다는 이유로 한동련은 대의원회의 자료 등을 통해 밖에 있는 입장이나 사실을 배경이 주제 사상과 상충된다. 한동련 지도부가 북한의 사상과 그대로 밖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시파 아닌가?"

신신 "불교 서적 몇 권 읽었다고 불교 신자라 할 수 없듯이 주시파는 밖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의 사상을 밖에 들어온다는 발언이다. 북한의 것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다."

신정인(정) "박 총장은 소련 등 사회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몰락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반도에서만 공산주의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주시파' 등으로 탄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한민족의 신체자주와 신체자주의 심지어 신 플라빈주의자들이 생기고 있는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적화통일 시기 허하기 때문이다."

학술부

용어 해설

CD(양도성금증수)

은행에서 판매하여 최저 예치금액은 3천만원이다. 예금의 일정이 끝나면 예금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종수형과 기간에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할 수 있으며 수익률도 높아 거의의 자금을 많이 이용된다. CD는 거액을 익명으로 살 수 있는 점에서 지난 전회대통령 4년여 정치비자금 사건 시에도 거론되기도 했다.

CPI(기압수준)

투자금융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장 최근의 수익률은 14.9%에 달하며 최저 예치금액은 CD와 비슷하다. 민기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게된다.

공사자체

9월부터 투자신탁에서 판매하기 시작. 학교만 밀려도 연 11% 이상의 이익이 돌아온다. 기업금액에 재향이 있고 입출금도 자유로워 이를 이용하거나 예금 후 30일 안에 돈을 찾을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또 이번 세제 개정안에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현숙 기자

학술 단신

행정학과, 모의 국무회의 열어
통일의 제반문제 논의 예정

행정학과 제6회 국무회의가 오는 21일(목) 6시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국무회의는 '제는 좌우의 남과로 난다'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남과북의 국무회의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현대 논의(서울·경기·군)·'인터넷 네트워크 통해 외국인의 세계화를 꾀하고 열악한 외대의 정보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为了'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장소 : 신상-상경대 301호
일정 : 29일(금) 까지 인터넷 강좌를 실시한다.

시간 : 5시간-7시간
내용 : 이론·인터넷의 서비스
이론·컴퓨터와 접두어에 있는 워너스 운영체계의 기초이론
문의 : 961-4597

중동아프리카 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중동 아프리카연구원(원장·본교 경외과 유정렬 교수)에서는 오는 21일(목) 22일(금) 양일간 '21세기를 향한 한국과 아랍드-경색과 협력의 변화와 연속'을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회를 개최한다. 한국과 아랍드의 수요를 기반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에는 아랍드 대표인 카이로대학 셀림 교수를 포함한 5명이 참여하며, 한국대표로는 본교 김정우(이란어과) 교수와 부산외대 한명주 교수 등 참석한다.

장소 : 폐시피콜드 장미호
시간 : 오전 9시30분 ~ 이튿날 5시
문의 : 961-4676

환경연합, 공개강좌 다양한 시각에서 환경문제·고찰

환경운동연합 사회환경대학은 어제 18일(화)부터 오는 11월 27일(월)까지 '환경·경제'라는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환경문제에 여러 분야에서 탐구하는 다양한 내용을 모색하게 된다. 각 강좌는 접두어에 있는 원래 교수와 함께 진행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9/18-환경문제의 원인과 성격
△9/25-환경문제와 학생회원
△9/25-경계법과 환경파괴△10/2-환경규제의 효율성·정희성(환경기술 개발원) 문의: 735-7000

인권운동 사방방 인권교육강좌 실시

인권운동사방은 인권의식의 확대와 실천을 위해 제2기 인권교육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11주간 강좌는 오는 12월 16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열린다.

△9/16-세계의 사형제도-왜 폐지해야 하는가?

△9/23-장애인의 고용문제와 현황
△9/30-아니구나, 성폭력에 중심으로 살펴본 여성문제
△10/7-북경여성대회 보고 및 평가
문의 : 715-9185

-고 힘-

지난 647호 "모의UN 회의 평가자"에는 취재과정의 부록으로 인해 대표·준비위원회의 준비과정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19주 총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의UN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정부의 조세개정안의 문제점

분배형평성 무시한 '선심' 성 개정

정부의 조세개정안이 확정되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들은 인하되고 담배, 술 등에 붙는 간접세는 인상세에 조세개정의 본래 취지가 되어 할 소득세부문은 디스플레이 총합과 세교육자원 확충방안·소비세부세 합리화방안 등 크게 세가지로 나온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당장간의 협의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여론에 의해 보완의례 등을 논의하기 계속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도 결론이 더욱 주목된다.

금융소득종합세의 경우 CD(양도성금증수)와 CP(기압수준)을 민기일 안에 되돌았을 경우 유보기간 동안의 이자액에 대해 세율을 정수 한다. 규정한 대신 세권과 공사채권 수수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취 계약한 지금 이 증권이나 토지시장으로 돌아진다는 것이 전

문기물의 분석이다. 또한 세부단점 경감책의 대상자기 연간소득 3천만원 이상인 부유층이라는 점 스트리파세를 선택할 수 있는 만기 연 10% 이상의 저축상품을 허용·설립한 점이다.

이와 함께

박현숙 기자

이 옳다"고 밝혔다.

소비세에서는 관련 부분 역시 위스키나 브랜디 등의 고급주류세가 50% 인하되고 과세특례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선심쓰기 가 가장 크게 지적되고 부른다.

이와 관련 경제정부는 위한 시민연합

(경실련) 혹은 종합토지세율의 인상과 차명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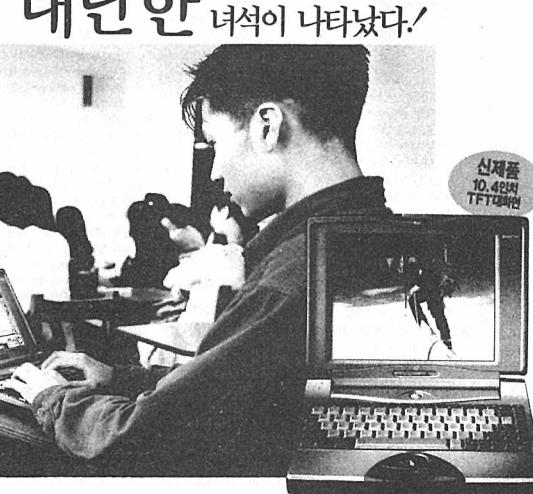
는 소득세·법인세는 6천 세액지원원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담배나 유통 등 일반 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과 간접세는 인상된다. 정부는 교육자금 확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2000년 까지 담배와 유통에 교육세를 포함시키기로 해 교육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반 예산에서 충당해야 할 부분인 교육세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오히려 꾸준히 제기되는 방위비를 삭감하는 것"이라고 의견이다.

박현숙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대단한 녀석이 나타났다!



신제품
10.4인치
TFT화면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임명 속사포 교수님 시간, 중노동같은 노트필기에 전등 긴장한 모습들. 그러나 난 의연하게 센스를 펼쳤지. 독을 깨지 하면서…… 녀석들 이정도에 놀라기는!

재빠르게 자료 검색을 하고선
속사포 교수님에게 고속포로 걸친 /

속사포 교수님은 질문에 당황하시면서도 교수님은 활활한 듯 웃는거야.

"정말 대단한 녀석이 나타났군!"

초선령, 고학길의 TFT방식 10.4인치 대화면

16비트 사용 카드, 스피커, 마이크 내장 -

혁신적인 2백만화도의 밀티미디어 노트북 PC 션스

• TFT 대형 화면으로 리포트를 작성한다. • 녹음한 강의를 다시 듣는다.

• 파일을 통신하기 한다.

■주요내용 (주제는 기본은 부기내용)

구 분	SPC560
CPU	NT-34U NT-34U+
LCD	480x320 10.4" TFT
Main Memory	4MB 8MB
IDE	340MB
PCMCIA	2EA(FW 1.4, PCMCIA)
Video B'd	VRAM 1MB, Local Bus
Sound	16비트 FM-PCM 시스템(MIDI, 스피커)
소비기준	2,298,000 2,498,000 2,750,000

World BEST SENS 삼성 노트북 PC-센스

세계 1등제품만을 만들겠습니다

기간 : 9월 30일까지

SAMSUNG

삼성전자

C&C COMPUTER COMMUNICATIONS

제작국: 대한민국 출시국: 대한민국

□ 고려대 공대 인터넷 운동모임 '네트컴' 대표 인터뷰

"한통노조 탄압 때 우리는 모두 PC통신을 주목했다"

유정민
(재료 공학과4)

고려대 공대 학생회는 지난 8월 중 '네트컴(Netcom)'이라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모임으로 우리대학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한통노조 탄압에 대한 진실성을 알리며 국내 전자신문 및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할 필요성을 느꼈다.

- 지금까지의 성과와 이후 전망은

= 지금까지는 준비단계로 본교의 중앙컴퓨터에 공대학생회와 과, 몇몇 개인이 신설한 계시판을 통해 몇 가지 인권상황을 알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조회 수만은 모두 외국인·해외·동포들로 부터 전자신문이 오는 등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앞으로는 모임이 정비되면서 국내의 정보통신부와의 연락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생각이다. 아울러 비디오 영상을 활용해 매체 시장은 사업도 주진 중이다.

- 앞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될 일은 무엇인가

= 학생들이 너무나 인터넷을 이해하고 있다. 교육이 절실했던 입장이다. 먼저 과학생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10월 중 각 대학 열사신문사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 등과 같은 인터넷 교육·홍보 자료를 전국 대학을 상대로 보낸 예정이다.

- 학교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들었는데

= 학교에서는 '전자계산소의 시스템이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나 특정단체의 흥보물을 게시할 수 없고 시스템의 용량 부족으로 학교컴퓨터의 속도가 느려 진다'라며 삭제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영상·화상·게시판·미디어 할 수 있는 '웹 총마이너'를 학교 중앙 컴퓨터에 몇 개 구축해 놓았는데 그 자체로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억지이다.

실제는 국민의 인권탄압 소식 등 민감한 내용을 다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인터넷에 대한 지속적 선전 등으로 정보를 통제하려는 학교의 처지를 널리 알리고 막아낼 것이다.

- 인터넷을 통한 운동의 전망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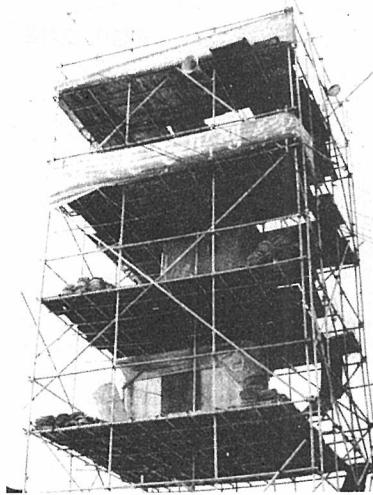
= 프랑스에는 전화가입자마다 미니텔이라는 정보단말기를 나누어 준다.

몇몇 전 프랑스 대학생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당시 학생들은 미니텔을 이용해 의견을 교환, 전국의 학생들을 일제히 동행업무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환경운동인 청년조직 '리드 오어 리브(Lead or Leave)'는 1백만명의 회원을 확보, 정치적 입법단체까지 성장했다.

통신·인터넷기기 기준 운동과 연예

시민기구로 대중운동의 가능성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고병원 기자



골리앗의 전설

맨 땅에서 주민들은 조직폭력으로 구성된 철거반원들을 이길수 없다.

그래서 철거민들은 텁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텁위에 올라 쇠파이프로 무장한 철거반원들과의 싸움을 벌여왔다.

골리앗이라고 불리우는 이 텁이 들어선 철거지역에서 철거민들은 아직 싸움에 저분 일이 없다.

하지만 골리앗의 화려한 전적처럼 철거민들의 싸움이 쉽지만은 않다.

현재 수도권일원의 철거대상자는 모두 1만1천7백19가구 4만 6천여명.

이들은 정부의 비호속에 거칠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건설업체들과 언론의 무관심속에서 오늘도 골리앗위의 의로운 싸움을 진행 중에 있다.

토지개발공사 현장사무소 관계자를 만나

동인 수지 철거2지구 대책위원장 초백진(37)씨를 만나

“폭력배 부른 것

우린 죄 없다”

이번 수지지역 철거 당시 철거용역업체를 부른 사실에 대해 토지개발공사(토개공) 수지 측의 담당자는 “어서 그런 소리를 들었나?”라고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철거를 직접 지시한 토개공의 현장사무소의 한 직원로부터 철거용역업체가 살지로 관여했음이 확인됐다.

“남은 싸움으로 인해 아주대 병원에 입원 중인 주민 허디환(남·45)씨는 ‘우리가 지원은 철거기연합회 회원들과 학생 30여 명이 협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 300명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가지고 달려와 우왕좌왕하는 주민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당시를 상황을 밝혔다. 또한 당시 철거민의 폭력으로 이들 허디환과 함께 철거민들이 벼랑 위에 떨어졌다.

“토개공은 명분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철거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몇명이 동원됐고 돈은 얼마나 지불되었는가?”

“500명이 동원됐고, 금액은 밝힐 수 없으나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조직폭력배들로 구성된 철거용역업체를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인터뷰는 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대회로 이 문제를 풀려고, 철거민들이 먼저 폭력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용역업체를 부른 것이다. 우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번 철거작업 때 주민은 물을 취재기자까지 다쳤다고 들었는데?”

“우리 직원도 2명이나 다쳤다. 자꾸 우리만 나쁜 놈으로 모는 것 같는데 그들은 폭력을 쓰기 위해 전국철거민협회와 대학생들까지 불러왔다.”

“용역업체를 불러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우리는 용인군청으로부터 행정재판청 영장을 받아 철거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영장이 나온 이상 철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하든 그것은 문제를 될 것이다.”

“철거에 대한 보상조건이 미흡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가?”

“맞다. 안된다. 철거지역에 들어설 아파트를 잠기기 위해 주고 아파트가 자어짐 등으로 생활을 위해 3백만원 무이자 할부를 우리는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철거민들은 이것도 미だ하고 더 높은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철거가 공고된 이후에 들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고병권 기자

주먹세계의 새로운 수익사업

철거작업 군사작전 방불케 해

지난 4월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동 근화병원 응급실에 여환자 한명이 실려왔다. “철거반원들에게 예상보다는 보호자와의 실랑이를 들으며 환자 옷을 벗기던 간호사 칼을 깨물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의 배는 물론 속옷 까지 온통 연탄대 투성이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는 블루 6동 철거민 대책위원회(철대위) 위원장 전아우개(40)씨.

그녀는 철대위 사무실을 철거반원들이 부수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자 사무실로 오던 중 등을 보던 한 철거반원이 “저년 겁나!”라고 소리를 치자 괄목 여기저기서 뛰어나온 철거반원 20여명에 의해 에워싸여졌다. 구조

에 몰린 전씨는 사정없는 주민과 발길질 세례를 받고 아랫배를 울커진 채 땅바닥에 쓰러졌다. 철거반원 한사람이 전씨의 배와 속옷을 끌어내렸다. 그리고 철거반원들은 연탄대 하나를 부수더니 벽돌이 이벤트도에 뿐였다.

철거용역반들의 폭력은 비단 이번 사례뿐이 아니었다.

철거지역 주민들은 “단전 단수 등 생활의 불편은 험할 수 있어도 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견디기 힘들다”고 항의같이 호소하고 있다.

제개발 폭력사태는 8년 이후 철거작업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면서부터 찾아지고 있으므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신도시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베주대교와 이러한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철거민들의 이야기이다.

먼저 철거용역업체의 인적구성을 살펴보자.

평균상 대표 또는 직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예술·경교·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실제 구성원은 조직폭력배 또는 전과자, 특수부대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근 근무자는 900여명 정도이고, 철거시 최대 동원 능력은 5백·800여명 정도이다. 한 예로 지난 92년 서울시 신정동 철거 당시에는 지방에서 까지 관광버스를 동원 1천여 명이 투입된 바 있다.

철거용역업체의 강제철거 작업 또한 “군사작전”을 벌여온다. 김영삼정부의 대안 없는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제개발 철거는 철거계획서를 보니 이들에 조직적이고 치밀한 활동양상이 잘 나와있다. ‘배나무 벌목업’이라는 암호명으로 돼 있는 철거계획서에는 철거지역 악도와 함께 ‘뛰어난 팀워크와 일시불란한 조직의 지휘체계에 이번 사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상처가 날 수 있는 머리 얼굴 등의 부위는 절대 피하라’는 등의 행동지침이 있다.

또한 이들 계획조합이나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철거를 시작하는데 ‘기한’ 내에 철거가 원로되지 않을 시 전금을 전부 뺏기기 된다는 조항같이 호소하고 있다.

제개발 폭력사태는 8년 이후 철거작업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면서부터 찾아지고 있으므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신도시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베주대교와 이러한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철거민들의 이야기이다.

먼저 철거용역업체의 인적구성을 살펴보자.

평균상 대표 또는 직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예술·경교·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실제 구성원은 조직폭력배 또는 전과자, 특수부대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근 근무자는 900여명 정도이고, 철거시 최대 동원 능력은 5백·800여명 정도이다. 한 예로 지난 92년 서울시 신정동 철거 당시에는 지방에서 까지 관광버스를 동원 1천여 명이 투입된 바 있다.

철거용역업체의 강제철거 작업 또한 “군사작전”을 벌여온다. 김영삼정부의 대안 없는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제개발 철거는 철거계획서를 보니 이들에 조직적이고 치밀한 활동양상이 잘 나와있다. ‘배나무 벌목업’이라는 암호명으로 돼 있는 철거계획서에는 철거지역 악도와 함께 ‘뛰어난 팀워크와 일시불란한 조직의 지휘체계에 이번 사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상처가 날 수 있는 머리 얼굴 등의 부위는 절대 피하라’는 등의 행동지침이 있다.

또한 이들 계획조합이나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철거를 시작하는데 ‘기한’ 내에 철거가 원로되지 않을 시 전금을 전부 뺏기기 된다는 조항같이 호소하고 있다.

제개발 폭력사태는 8년 이후 철거작업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면서부터 찾아지고 있으므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신도시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베주대교와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철거민들의 이야기이다.

먼저 철거용역업체의 인적구성을 살펴보자.

평균상 대표 또는 직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예술·경교·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실제 구성원은 조직폭력배 또는 전과자, 특수부대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근 근무자는 900여명 정도이고, 철거시 최대 동원 능력은 5백·800여명 정도이다. 한 예로 지난 92년 서울시 신정동 철거 당시에는 지방에서 까지 관광버스를 동원 1천여 명이 투입된 바 있다.

철거용역업체의 강제철거 작업 또한 “군사작전”을 벌여온다. 김영삼정부의 대안 없는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제개발 철거는 철거계획서를 보니 이들에 조직적이고 치밀한 활동양상이 잘 나와있다. ‘배나무 벌목업’이라는 암호명으로 돼 있는 철거계획서에는 철거지역 악도와 함께 ‘뛰어난 팀워크와 일시불란한 조직의 지휘체계에 이번 사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상처가 날 수 있는 머리 얼굴 등의 부위는 절대 피하라’는 등의 행동지침이 있다.

또한 이들 계획조합이나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철거를 시작하는데 ‘기한’ 내에 철거가 원로되지 않을 시 전금을 전부 뺏기기 된다는 조항같이 호소하고 있다.

제개발 폭력사태는 8년 이후 철거작업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면서부터 찾아되고 있으므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신도시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베주대교와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철거민들의 이야기이다.

먼저 철거용역업체의 인적구성을 살펴보자.

평균상 대표 또는 직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예술·경교·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실제 구성원은 조직폭력배 또는 전과자, 특수부대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근 근무자는 900여명 정도이고, 철거시 최대 동원 능력은 5백·800여명 정도이다. 한 예로 지난 92년 서울시 신정동 철거 당시에는 지방에서 까지 관광버스를 동원 1천여 명이 투입된 바 있다.

철거용역업체의 강제철거 작업 또한 “군사작전”을 벌여온다. 김영삼정부의 대안 없는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제개발 철거는 철거계획서를 보니 이들에 조직적이고 치밀한 활동양상이 잘 나와있다. ‘배나무 벌목업’이라는 암호명으로 돼 있는 철거계획서에는 철거지역 악도와 함께 ‘뛰어난 팀워크와 일시불란한 조직의 지휘체계에 이번 사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상처가 날 수 있는 머리 얼굴 등의 부위는 절대 피하라’는 등의 행동지침이 있다.

또한 이들 계획조합이나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철거를 시작하는데 ‘기한’ 내에 철거가 원로되지 않을 시 전금을 전부 뺏기기 된다는 조항같이 호소하고 있다.

제개발 폭력사태는 8년 이후 철거작업을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면서부터 찾아되고 있으므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신도시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베주대교와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철거민들의 이야기이다.

먼저 철거용역업체의 인적구성을 살펴보자.

평균상 대표 또는 직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예술·경교·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실제 구성원은 조직폭력배 또는 전과자, 특수부대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근 근무자는 900여명 정도이고, 철거시 최대 동원 능력은 5백·800여명 정도이다. 한 예로 지난 92년 서울시 신정동 철거 당시에는 지방에서 까지 관광버스를 동원 1천여 명이 투입된 바 있다.

철거용역업체의 강제철거 작업 또한 “군사작전”을 벌여온다. 김영삼정부의 대안 없는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세계로 가는 엘리트, 함께 가는 LG



오! 대만 프로



무통지 대

우리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키우는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세계속의 초우량을 실현하는 LG 매년 전국에서 1천여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다양한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전공관련 자격취득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며 세계 곳곳으로 연수도 보내드립니다.

우수 인재를 세계로 안내하는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올해로 처음 실시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여름방학 동안 180余名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동남아 그룹연수 및 각국 배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LG 산학지원 프로그램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세계를 이기는 한국을 이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기습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저희 LG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의대와 나

언론을 판 봉이 김선달

이 성환
(서사빈어 86, 소설가)

누가 위로도 조선시대 최고의 사기꾼은 뭔가 김선달이다. 대동강 물을 펴어 먹을 정도로 그의 수완은 대단했다. 여름에는 물세를 받는 척하며, 겨울에는 암습위에 모래를 살짝 뿌려서 비죽로 토지라 속여 두번씩이나 대동강을 판았다.

속이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든 그의 사기행각은 계속되었다. 물론 이런

사기행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전으로 읽히지는 이유는 그가 줄넘기, 당시의 자세세적인 양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혜화과 풍자성이 점쳐서이다. 할 것이다.

인간사의 승리상 모든 사람에게 유하는 강물이나 하늘, 공기같은 것은 시사되는 물건이 아니다. 사고 패턴인 것이 비로 언론이다.

이느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 아래로 보듬고 지키며 함께 하는 것은 이런 대자연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주인은 그 언론이다.

인간생활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자체에도 존재한다. 그중에 대형적인 것은 그 소유가 어느 개인에게 드립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게 주인이 있다면 배우나 자신의 폐를 담보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막그대로 '숨마이'이다.

제작비용을 대는 것도 그이며, 그의 명령없이는 제작될 수 없다. 그가 만들라고 해야 만들 수 있고, 그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그만 두면면 기자는 그만 두어야 되고, 그가 없앤다고 하면 외대학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은 주인은 그 언론을 공유하는 모두이다. 언론의 주인은 그 언론을 기능케하는 여론의 생산자 모두인 것이다.

외대학보의 주인은 외대 전구성원이다. 학생·교수·직원들 모두가 언론을 공유하는 모두, 외대의 모든 생활을 기능케하는 여론의 생산자 모두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때문에 외대학보의 소유권은 본인이다.

내가 사는 모든 생활권은 외대인이라는 그

□ 본교 제5차 교육과정개정안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당국의 열린 의식이 성공의 관건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돼야

계열 영역	어문계	인문·사회계	이학·공학계
실용영어	8	8	8
교양	24	24	24
전공	54	54	54
복수/자유/부	54	54	54
계	140	140	140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배분표>

학기 영역	1-1	1-2	2-1	2-2	3-1	3-2	4-1	4-2	계
실용영어	2	2	2	2					8
교양	6~7	6~7	3	3	2~3	2~3			24
전공	9	9	15	15	15	15	15	15	108
복수/자유/부									
계	17~18	17~18	20	20	17~18	17~18	15	15	140이상

<학기별·영역별 이수학점 배분표>

적 적용으로 자주로운 토론식 강의를 맡는 경영학과	로서 최소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학교에 관한 시험을 최초화할 수도 있어 강의의 정체성을 여지가 있는 충분하다.
세계, 복수전공의 개정내용에 있어서 나타난	이 밖에 사법예시의 출판학점을 1백50학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그 구체적 내용증시가 경영학과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세계, 복수전공의 개정내용에 있어서 나타난	예제로是以 아니라 현재 시범대학이 인증되는
세계, 복수전공의 개정내용에 있어서 나타난	정부나 민관 학제적 협력으로 출판학점을 통과
세계, 복수전공의 개정내용에 있어서 나타난	될 때 역시 출판기 가능케 하는 제도도 고려할 만 한다.

비인기학과 쇠퇴

적 적용으로 자주로운 토론식 강의를 맡는 경영학과

로서 최소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학교에 관한 시험을 최초화할 수도 있어 강의의 정체성을 여지가 있는 충분하다.

이 밖에 사법예시의 출판학점을 1백50학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그 구체적 내용증시가 경영학과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제로是以 아니라 현재 시범대학이 인증되는 정부나 민관 학제적 협력으로 출판학점을 통과

될 때 역시 출판기 가능케 하는 제도도 고려할 만 한다.

지역학은 후퇴했는가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기대했던 지역화 부문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내린다. 구체적 내용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로 미룬 듯한 이상을 지울 수 없는데, 이는 25명의 신규교수 중 지역학 관련 전공교수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원 학장이 도출될 때까지 지역화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대학당국의 열린 자세를 기대한다.

방학 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정해국장, 법·법학 4>

한명이 모자라

○ 한명이 모자라— 과정기총회에 참여한 축신들이 너무나 적어 과 회장과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오늘, 환생한 김선달은 그 주인이 참시는 한명이 모자라— 과정기총회에 참여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김선달은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에 한 학우 월 출판에 대한 축신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접목을 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전 외대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을.

